

〈일반논문〉

『舍利靈應記』 재검토 - 편찬자와 특징을 중심으로 -

정 영 미 *

〈목차〉

- I. 머리말
- II. 갑인자본 『사리영응기』의 편찬자 재검토
- III. 『사리영응기』의 내용과 의궤적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1448년(세종30) 文昭殿 옆에 건립한 佛堂의 落成을 기념하여 행한 慶讚會에 대해 기록한 『舍利靈應記』는 金守濫이 저자로 알려져 있고, 금속활자인 初鑄 甲寅字로 인쇄한 조선 초기의 불교 전적이다. 『사리영응기』는 김수온의 문집인 『拭疣集』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규모와 내용 면에서 매우 다른 기록이다. 『사리영응기』에는 경찬회를 주도한 승려의 명단, 信眉와 김수온의 공동 저작으로 경찬회의 절차를 모두 기록한 「三佛禮懺文」, 세종이 새로 작곡한 新聲 7곡의 제목과 그의 가사인 9개의 약장, 저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찬회의 발원문인 疏 2편, 법회 참석자 261명의 명단인 「精勤入場人名」이 小字雙行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식우집』에는 없는 내용이다.

특히 「삼불예참문」은 법회의 의식 절차에 대한 일종의 의식집인데, 이는 비슷

* 한국고전번역원 책임연구원/동국대 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한 시기에 간행된 수록재 의식집인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등이 명칭은 다르지만 수록재 절차를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사리영응기』는 김수온의 저작이 아니라 문소전 불당 건설부터 경찬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관련된 기록을 모아 편찬한 전적이다. 불당은 유교적 추모 공간인 문소전에 짝하는 불교적 추모 공간이므로, 『사리영응기』는 불당에서 행하는 추모 의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는 특정 의례의 진행을 위해 설치된 都監에 관련된 모든 내역을 담고 있는 조선 시대 관찬 의례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다.

□ 주제어

사리영응기, 의궤, 경찬회, 의식집, 삼불예참문

I. 머리말

『舍利靈應記』는 1448년(세종30) 文昭殿 佛堂의 낙성을 기념하는 법회인 慶讚會에 대한 기록으로, 金壽溫(1410~1481)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1449년 初鑄 甲寅字로 간행된 『사리영응기』(이하 ‘갑寅자본’)는 조선 초기 금속활자본이라는 서지적 특성과 내용에 담고 있는 불교, 음악, 한글 등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그러나 기존 연구는 『사리

1) 『舍利靈應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오성, 「세종조 불교 음악 관계 문헌의 연구」, 『세종학연구』 2, 1987; 정상훈, 「甲寅字本 『舍利靈應記』에 대하여: 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東院論集』 7, 1994; 박범훈, 「세종이 창제한 불교 음악 연구 -사리영응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23, 1999; 이정주, 「세종

영응기』의 내용에 주목하였고, 형태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나 갑인자본의 편찬자로 알려진 김수온의 문집 『拭疣集』에 수록된 「사리영응기」(이하 ‘식우집본’)와의 비교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리영응기」²⁾는 문소전 불당 건립부터 낙성 법회인 경찬회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를 서술한 글로, ‘記’라는 한문 문체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갑인자본과 식우집본을 비교해 보면 분량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갑인자본은 24장(48면)이고 식우집본은 5장(10면)으로, 갑인자본이 식우집본에 비해 4배가 넘는 분량이다. 이는 9行 15字인 갑인자본과 12行 19字인 식우집본 간의 행자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 사람이 쓴 같은 글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큰 차이이다. 이런 차이는 갑인자본에는 식우집본에 없는 小字雙行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소자쌍행 부분을 제외하면 두 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김수온의 문집인 『식우집』에 수록된 글을 모두 김수온의 저작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식우집본에 수록되지 않은 갑인자본의 소자쌍행 부분을 김수온이 짓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본인의 저작이 아닌 부분이 다수 삽입된 갑인자본을 김수온의 온전한 저작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소자쌍행 부분의 내용 검토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소자쌍행 부분의 내용 가운데 「三佛禮懺文」, ‘樂章’, 「精勤入場人名」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이루어졌다.³⁾ 그러나 갑인자본의 내용과 연관하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고문서연구』 31, 2007 ; 김우진, 「『사리영응기』 소재 악공 연구」, 『한국음악연구』 45, 2009 ; 김기중, 「『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親製新聲’ 연구」, 『泮橋語文研究』 37, 2014 ; 송혜진,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친제 불교음악」, 『동양예술』 30, 2016.

2) 갑인자본과 식우집본에 대한 통칭으로는 ‘사리영응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3) 김기중, 「『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親製新聲’ 연구」, 『泮橋語文研究』 37, 2014 ; 송혜진,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친제 불교음악」, 『동양예술』 30,

여 소자쌍행 부분의 전반적인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갑인자본에 대한 이해는 김수온의 저작이며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인쇄된 불교 전적⁴⁾이라는 데 머물고 있고, 세부 분류 역시 史傳類-靈驗部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본고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갑인자본의 편찬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소자쌍행의 내용과 본문과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문소전 불당의 건립부터 경찬회까지의 과정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한 각각의 담당자와 경찬회의 의식 절차에 해당하는 「삼불예참문」, 발원문인 疏, 참석자 명단 등을 모두 담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왕조 儀軌와 내용적 유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한 의례의 전 과정과 참석 인원, 소요 물자, 儀註 등을 아우르는 기록인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편찬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실물이 현전하는 않는 상황에서 조선 초기 의궤의 실체를 추론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갑인자본 『사리영응기』의 편찬자 재검토

『사리영응기』는 1448년 문소전 불당 낙성을 기념한 경찬회에서舍利

2016 ; 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고문서 연구』 31, 2007.

4) 손성필은 王室板·棺板 불교 전적으로 분류하였고(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0쪽), 광동화 역시 조선 전기의 왕실본으로 분류하였다(광동화, 「조선 전기 왕실본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60~61쪽).

5)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 2015, 226쪽 표2.

가 分身하고 放光한 異蹟을 주제로 불당 건립부터 사리 분신까지의 경과를 기록하고 이를 예찬한 글이다. 갑인자본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㉑ 佛堂 建設과 佛像 造成, ㉒ 信眉와 金守濫에게 「三佛禮懺文」을 지이라 명함, ㉓ 親製新聲과 樂章, 연주와 춤, ㉔ 點眼法會와 落成法會, 즉 慶讚會, ㉕ 경찬회에 대한 찬미, ㉖ 「精勤入場人名」의 여섯 부분이다.

갑인자본의 편찬자가 김수온이라는 것에 대한 異論은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았다. 갑인자본을 김수온의 저작이라 단정한 근거는 갑인자본 대자 말미에 있는 “守兵曹正郎臣金守濫謹記”인데, 이는 “처음에 慶讚하던 저녁에 부처가 放光한다고 宣言하고, 正郎 김수온이 글을 지어 부처의 功德이 성한 것과 오늘날 귀의하고 존송함의 지극함을 극진히 말하여 ……”라는 『세종실록』의 기록⁶⁾과도 일치한다. 또한 김수온의 문집 『식우집』에 갑인자본 大字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리영응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 역시 매우 분명한 근거이다. 다만 식우집본에는 갑인자본 말미의 “守兵曹正郎臣金守濫謹記”가 없는데, 『식우집』에는 문집의 특성상 부록을 제외하면 김수온의 저작이 아닌 글이 삽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별도로 편찬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 생략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갑인자본과 식우집본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즉 대자로 기재된 사리영응기는 김수온의 저작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갑인자본은 대자로 기재된 「사리영응기」 외에 소자쌍행으로 다양한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글을 모두 김수온이 지었다면 갑인자본의 편찬자 역시 김수온이라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김수온이 갑인자본의 소자쌍행 부분을 저술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갑인자본과 식우집본을 비교해 보고, 다음으로 소자쌍행 부분의 내용을 상세

6) 『세종실록』 권124, 31년 5월 21일. “初, 慶讚之夕, 宣言佛放光, 正郎金守濫作文, 極言佛功德之盛, …”

히 살펴보겠다.

『식우집』은 1484년(성종15)에 주조한 甲辰字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인데, 원본인 권2와 권4는 零本이며, 補遺 1권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⁷⁾ 『식우집』은 저자가 사망한 후 편집과 간행이 이루어지는 문집 편찬의 특성상 김수온이 사망한 해인 1481년(성종12) 이후에 간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갑진자의 주조 연대를 고려하면 『식우집』 간행 연대의 상한은 1484년 이전이 될 수 없다. 또한 『성종실록』에 수록된 김수온의 卒記에 『식우집』 간행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⁸⁾ 『성종실록』이 간행된 1499년(연산군5) 이전에 간행된 것이 분명하므로, 『식우집』의 간행 연대는 1484년 이후 1499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식우집본은 『식우집』 권2에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사리영응기」를 포함하여 35편의 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如來現相記」와 「見性庵靈應記」도 舍利 分身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식우집본의 규모는 5장(10면)으로 각 면은 12행 19자이고 모두 대자로 되어 있으며, 글자수는 2300자 정도이다.⁹⁾ 식우집본에 갑인자본에 소자쌍행으로 기록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앞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㉞ 精勤入場人名을 제외하고 갑인자본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인명은 ‘官職名 臣 姓名’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는데, 갑인자본이 관직명과 姓은 대자로, 臣과 名은 소자로 구분하여 기록한 데 비해, 식우집본은 인명 전체를 대자로 기록하였다. 둘째 갑인자본에 ‘琛’로 기록된 首陽大君의 이름은 식우집본은 생략하거나 ‘大君’ 또는 ‘首陽大君’으로 고쳤다. 셋째 갑인자본에는 불당의 규모를 “總二十六間”이라는 대자와 함께 소자쌍행으로 “佛殿一間, 補簷八間……浴室二間”을 부기하여 각 건물의 명칭과

7) 「식우집 해제, 『한국문집총간해제』 1, 민족문화추진회, 1991.

8) 『성종실록』 권130, 12년 6월 7일. “有《拭疣集》行于世.”

9) 한국고전종합DB의 식우집 텍스트를 기준으로 계산한 대략의 수치이다.

간수를 모두 밝혔지만 갑인자본은 “總二十六間”이라고만 기록하였다. 넷째 12월 2일 新寺에 모인 승려 51명의 직명과 법명을 모두 밝혀 “信眉及判禪宗事臣坦珠……臣省正等五十一比丘會於新寺”로 2면에 걸쳐 기록하였지만, 식우집본은 “信眉及判禪宗事臣坦珠等五十一比丘會於新寺”로만 기록하여 信眉와 坦珠 2인만 밝히고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자. 『식우집』에는 소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첫 번째 차이는 편집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두 번째는 세조의 이름을 바로 드러낼 수 없으므로 避諱하기 위하여 바꾼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단순히 편집 형식의 차이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식우집』에 수록된 「民和樓記」, 「上元寺重創記」 등 건축물을 다룬 기를 살펴보거나 일반적인 기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상세하게 건축 규모를 밝힌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신사에 모인 51명의 명단은 간행 시기가 늦은 식우집본이 원래 김수온의 저작할 당시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소자쌍행으로 기록한 「정근입장인명」과도 비교가 필요하므로 추후에 상술하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식우집본은 갑인자본과 거론할 만한 몇 가지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동일한 것이고, 『식우집』의 체제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갑인자본의 소자쌍행에 대해 살펴보겠다. 소자쌍행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제목은 소자쌍행 바로 앞 대자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붙였다.

<표 1> 갑인자본 소자의 내용

제목	수록 위치	세부 내용	특징
三佛禮懺文	㉟	①初入道場正念作觀~16三自歸依의 16항목	항목명 墨蓋字 처리

樂章	㉔	①歸三寶~⑨希冥資	5字 6句의 韻文
執樂器者45人	㉔	正銅鈸 등 28종의 악기 명칭과 수효	
點眼疏	㉔	점안 법회의 소	
落成疏	㉔	낙성 법회의 소	
精勤入場人名	㉔	대자암 주지 신미를 비롯한 261명의 명단	승려, 宗親 및 儀賓, 朝官의 차례로 기록

이를 갑인자본 편찬자 문제와 연관하여 살펴보겠다.

「삼불예참문」은 “命大慈庵住持臣信眉及臣守溫撰三佛禮懺文” 아래에 삽입되어 있으므로 이 글은 신미와 김수온의 공동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갑인자본 13면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갑인자본 전체의 약 27%에 해당하며, 소자쌍행이 1면당 18행 15자인 것을 감안하면 글자수는 약 3500자로, 2300자의 「사리영응기」보다 훨씬 분량이 많다.

樂章은 “又親製新聲仰鴻慈之曲 …”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新聲에 해당하는 仰鴻慈之曲 등 7곡의 악곡명을 먼저 나열하고 9개의 악장명 아래에 악장을 삽입하였다. 이는 ‘친제’한 7곡의 악곡에 얹어 부르기 위한 가사로서의 악장으로 <표 1>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곡마다 5자 6구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중과 송혜진은 이를 仰鴻慈之曲 등의 악곡과 마찬가지로 세종의 친제로 보았다.¹⁰⁾

正銅鈸 등 28종의 악기 명칭과 수효를 기록한 執樂器者 45人是 법회에서 연주한 음악의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결코 김수온이 지었거나 정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點眼疏」와 「落成疏」 역시 점안 법회와 낙성 법회에 올린 疏文이지만,

10) 김기중, 「『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親製新聲’ 연구」, 『泮橋語文研究』 37, 2014 : 송혜진,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 친제 불교음악」, 『동양예술』 30, 2016,

「사리영응기」에 김수온이 직접 지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김수온의 저작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국가 주도의 법회가 성행한 고려 시대에 법회를 위해 지은 疏가 개인의 문집 등에 다수 수록되어 있고,¹¹⁾ 조선 초기에도 權近과 卞季良의 문집에 여러 편의 소가 수록된 것¹²⁾을 토대로 국가의 文翰을 담당하는 관원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精勤入場人名」은 식우집본에 없는 내용이다. 「정근입장인명」에는 261명의 명단이 승려, 종친과 의빈, 조관 등을 품계 등을 기준으로 차례로 기록하였는데, 261명이라는 수효는 “卽聚所在大衆，無問貴賤，共入佛前，凡二百六十一人，然臂懺悔”라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정근입장인명」가장 앞부분에 기록된 승려는 51명인데 이는 갑인자본 본문에 언급한 12월 2일 新寺에 모인 51명의 승려 명단과 기재 순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는 식우집본과의 차이점 중 하나로 언급한 것처럼 김수온이 저술한 「사리영응기」에 본래 포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후에 정리하여 부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종실록』 30년 12월 5일과 31년 5월 21일 기사를 살펴보겠다.

法會를 파하고는 首陽大君이 慶讚會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契文을 지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벌여 써서 軸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¹³⁾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들은 지난번 佛堂의 慶讚 때에 大君부터 輿臺, 樂工까지 法會에 나온 모든 사람이 契를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계를 맺은

11) 『東文選』에는 권110부터 권113까지 126편의 疏가 수록되어 있고,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는 권39에 「佛頂道場疏」 등 32편의 소가 수록되어 있다.

12) 權近의 『陽村集』에는 권27과 권28에 23편의 疏가 수록되어 있고, 卞季良의 『春亭集』 「追補」에는 19편의 소가 수록되어 있다.

13) 『세종실록』 권122, 30년 12월 5일. “會罷，首陽大君圖慶讚會，又製契文，列書與會人名，作軸分與之.”

사람이 모두 착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심부름하는 조치개 무리와 함께 계를 맺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금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 윤희하지 않았다.

처음에 경찬하던 저녁에 부처가 放光한다고 宣言하고, 正郎 金守濫이 글을 지어 부처의 功德의 성한 것과 오늘날 귀의하고 존승함의 지극함을 극진히 말하여, 大君과 여러 君, 좌참찬 鄭萃, 판서 閔伸, 부윤 朴堧, 도승지 李思哲부터 窟寺, 工匠까지 분향하고 부처에 맹세하여, 함께 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말한 것이다.¹⁴⁾

문소전 불당의 경찬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별도로 계를 맺었고, 수양대군이 주도하여 경찬회의 그림과 계문, 명단을 축으로 만든 이른바 ‘契會圖’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근입장인명」은 문소전 경찬회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인 동시에 수양대군이 주도하여 맺은 계의 참여자 명단이므로 김수온의 저작이 아니라 계회도를 만들 때 작성한 명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를 종합하면 갑인자본은 김수온이 문소전 불당 낙성을 기념하는 법회에서 사리 분신의 이적이 나타난 일을 기록한 「사리영웅기」에 신미와 김수온의 공동 저작인 「삼불예참문」, 세종이 지은 9곡의 악장, 저자를 알 수 없는 2편의 소, 수양대군이 주도하여 맺은 계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찬회 참석자 명단 등을 추가하여 편찬한 전적이다. 그러므로 ‘사리영웅기’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김수온을 갑인자본의 편찬자로

14) 『세종실록』 권124, 31년 5월 21일. “司憲府啓: “臣等聞往者佛堂慶讚之時, 自大君至于輿臺, 樂工凡赴會者結契. 假使結契者皆善, 尙且不可, 況與僕隸之輩結契乎! 請禁之.” … 不允 初, 慶讚之夕, 宣言佛放光, 正郎金守濫作文, 極言佛功德之盛, 今日歸崇之至, 自大君諸君及左參贊鄭萃, 判書閔伸, 府尹朴堧, 都承旨李思哲, 下至窟寺工匠, 焚香誓佛同作契, 故憲府言之.”

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갑인자본은 왕실판 또는 관판으로 분류되는 불교 전적으로 초주 갑인자로 인쇄한 것이다. 또한 김수온의 단일 저작물이 아닌, 김수온이 저술한 「사리영응기」를 근간으로 문소전 불당 경찬회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편집 또는 편찬의 행위를 거쳐 완성된 전적이다. 그러므로 갑인자본의 편찬자로는 왕실 또는 국가의 명을 수행한 관원이나 관청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편찬을 주도한 관원 또는 관청은 경찬 법회에 참여한 뒤에 계를 맺고 계회도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일을 주도한 수양대군과 일정한 관계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합당하다.

III. 『사리영응기』의 내용과 의궤적 특징

1. 『사리영응기』의 내용과 편찬 목적

갑인자본이 김수온이 지은 「사리영응기」에 문소전 불당 경찬회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편찬한 전적이라는 것을 II장에서 밝혔다. 갑인자본을 편찬한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정주의 선행 연구가 있고,¹⁵⁾ 본고의 주제와 조금 거리가 있으므로 논외로 하겠다. 다만, 소자쌍행을 제외하면 갑인자본과 식우집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사리영응기」의 내용만으로도 ‘세종을 부처님이 보낸 德化의 반열로 올려 놓는’¹⁶⁾ 저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15) 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고문서연구』 31, 2007.

16) 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139쪽.

「사리영응기」는 『식우집』에 수록된 다른 ‘기’보다 문소전 불당 건설과 법회의 과정, 내용, 담당자 등을 날짜까지 분명히 밝히며 매우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는 세조의 명으로 상원사를 증창한 데 대한 「상원사증창기」나 孝寧大君이 주도한 법회에서 사리 분신의 이적이 일어난 일을 다룬 「如來現相記」와 廣平大君 부인이 주도한 법회를 기록한 「見性庵靈應記」가 행사의 배경과 과정의 대략을 서술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기술 태도이다. 태조, 태종 등을 모신 경복궁 안의 別廟인 문소전에 불당을 세우는 일을 세종은 조정 신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安平大君, 수양대군 등에게 불당 건설과 불상 조성을 총괄하게 하고 정분, 김수온 등 친불적인 신료들을 동참시켰다. 또한 「삼불예참문」을 김수온과 함께 짓고 법회를 주도한 大慈庵 住持 신미를 비롯하여 判教宗事 坦珠, 判禪宗事 希忍 등 법회에 참석한 승려들은 당시 불교계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소전 불당의 건설과 낙성 법회인 경찬회는 왕실, 신료, 승려가 동참한 국가적인 행사였고, 「사리영응기」가 이러한 국가적 행사에 대한 기문이라는 데서 상세하게 서술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사리영응기」를 상세하게 서술한 배경은 밝혔지만, 「사리영응기」 이외의 불당 건설, 경찬회 개최 과정, 참여 인원 등의 자료를 모두 수록하여 다시 갑인자본을 편찬한 의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갑인자본 소자쌍행 내용의 분석, 검토를 통하여 갑인자본의 성격과 편찬 목적을 밝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㉗ 佛堂 建設과 佛像 造成에 부기한 소자쌍행은 불당의 규모에 관한 것으로, 앞서 식우집본과의 차이를 밝히는 세 번째 특징으로 이미 언급하였다.

㉘ 信眉와 金守溫에게 三佛禮懺文을 지으라는 명 아래의 「삼불예참문」은 ① 初入道場正念作觀부터 ⑩ 三自歸依까지 16항목으로 각각의 항목명을 墨蓋字로 처리하여 파악이 용이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송혜진은 「삼불

예참문」이 불교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삼불예참문」의 목개자로 처리된 16항목을 법회 진행 과정에 따라 정리하여 ① 初入道場正念作觀은 嚴淨道場에 ② 如是作觀已舉佛은 啓請聖賢에 ③ 禮佛要妙, ④ 一切恭敬, ⑤ 作觀已同發是言은 觀行供養에 ⑥ 供養已歸命禮三寶, ⑦ 諸佛讚은 稱讚如來에 ⑧ 三寶讚은 禮敬三寶에 ⑨ 懺悔, ⑩ 五懺, ⑪ 我弟子等至心懺悔는 懺悔에 ⑫ 我弟子等至心勸請은 勸請에 ⑬ 我弟子等至心隨喜는 隨喜에 ⑭ 我弟子等至心廻向은 廻向에 ⑮ 我弟子等至心發願은 發願에 ⑯ 三自歸依은 三歸依에 해당하는 것으로, 禮懺法會의 절차라는 것을 밝혔다. 즉 「삼불예참문」은 문소전 불당의 삼존불을 위한 禮敬의 형태와 참회의 行法이 어우러진 불교 의식인 예참 법회의 절차를 기술한 글로, ‘책 속의 책’처럼 『사리영응기』에 실린 ‘불교의식집’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¹⁷⁾ 「삼불예참문」 가운데 목개자의 항목명이 없는 맨 앞의 “預前擇衆設浴, 以淨道場, 爾乃開此禮懺法筵 ……”은 법회를 시작하기 전의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㉔ 親製新聲과 樂章, 연주와 춤에는 세종이 작곡한 仰鴻慈之曲 등 新聲 7곡의 가사인 ‘歸三寶’ 등 9개의 악장과 이를 연주하기 위한 악대의 구성인 執樂器者 45인이 수록되어 있다. 執樂器者 45人은 正銅鈸 등 28종의 악기 명칭과 수효를 함께 밝혀 악대의 전체 구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를 본문에서 밝힌 竹竿子 2인, 악장을 노래할 10인의 歌者, 靑蓮花 등을 들고 춤을 추는 舞者 10인과 아울러서 보면 법회에서 연주한 음악과 노래한 가사, 춤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다.

㉕ 點眼法會와 落成法會에 수록된 「點眼疏」와 「落成疏」는 법회의 發願文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회에서 독송했을 것이다.

㉖ 「精勤入場人名」은 II장에서 이미 거론하였듯이 법회에 참석한 261

17) 송혜진,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 친제 불교음악』, 114쪽 〈표 1〉.

명의 명단을 모두 밝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갑인자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갑인자본은 문소전 불당의 건축과 단청, 불상 조성, 음악 연주 등 각각의 주요 업무에 관한 담당 관원과 법회 참여 승려 명단 등 문소전 불당 건설과 경찬회를 진행한 인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법회의 의식 및 발원문을 수록하여 법회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드러내었으며, 법회에서 연주한 음악, 노래, 춤 역시 악기와 악대의 구성, 노래하는 사람의 수효, 춤추는 사람의 구성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정근입장인명을 통하여 법회에 참여한 인원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갑인자본의 가치가 김수온이 지은 「사리영응기」와 명칭은 동일하지만, 문소전 불당의 건립 과정과 경찬 법회의 면모를 담고 있어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영험을 기록한 불교 전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종의 명으로 건립한 문소전 불당의 건축과 낙성 법회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행사였고, 갑인자본은 이에 관한 의례의 전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갑인자본이 문소전 불당의 낙성 법회인 경찬회의 전 과정을 담은 의례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편찬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세종은 문소전 경찬회를 위해 신미와 김수온에게 삼불예참문을 지으라고 명하였고, 그 결과물이 소자쌍행의 「삼불예참문」이다. 그러므로 「삼불예참문」은 기존의 예참 법회와 다른 형식의 의례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예참 법회는 대중적인 불교 의례 중 하나로 『태종실록』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¹⁸⁾ 「삼불예참문」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례를 창안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기존의 의례를 정리하여 국가적 의례에 걸맞은 의식으로 정비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경

18) 『태종실록』 권1, 1년 1월 7일, “設帝釋禮懺于乾聖寺, 水陸齋于津關寺.”

찬회를 위한 악곡과 악장을 세종이 직접 짓고, 박연 등이 담당하고 수양대군이 이를 총괄하게 한 것을 통해 음악 연주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기중은 친제신성이 歌, 舞, 樂으로 구성된 多才인 동시에 제례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불교 의례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¹⁹⁾ 송혜진은 문소전이 왕실 조상을 위한 유교적 제례 공간이라면 불당은 이에 짝하는 불교적 추모 공간이므로 세종의 친제신성은 문소전 제례악²⁰⁾과 짝을 이루는 불교의 내불당 의식 음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²¹⁾ 문소전 불당을 별묘인 문소전과 짝을 이루는 불교적 공간이고, 삼불예참문과 친제신성이 불교적 추모 의례의 의식과 음악이라면 이를 정리해 놓을 필요는 더욱 명확해진다. 갑인자본은 경복궁 내의 불교적 추모 공간인 문소전 불당을 건설하면서 새로이 정비한 의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참고할 필요에 따라 편찬, 간행된 것이다. 이러한 편찬 의도가 명확히 드러날 때 비로소 갑인자본을 초주 갑인자로 인출한 배경 역시 더욱 선명해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갑인자본의 편찬 목적과 내용을 보면 갑인자본은 국가나 왕실 주도로 행한 중요한 의례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조선 시대 관찬 의궤와 유사성을 지니는 전적이다.

2. 『사리영응기』의 의궤적 특징

위에서 갑인자본이 의궤의 성격을 가진 자료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갑

19) 김기중, 『『사리영응기』 소재 세종의 ‘親製新聲’ 연구』, 193쪽.

20) 『세종실록』 권62, 15년 12월 21일. “禮曹啓: “上護軍朴堧上言條件, 與詳定所同議: 一. ‘樂必有號, 曲必有名, 皆加美稱, 以章懿德. 今文昭殿新製樂章, 其節奏則初獻, 用唐樂《中腔令》, 亞獻用鄉樂《風入松調》, 然樂號曲名未立, 有違考制. 願命徽稱, 以垂來世.’ 右條, 太祖初獻曰《桓桓曲》, 亞獻曰《維皇曲》; 太宗初獻曰《禮禮曲》, 亞獻曰《維天曲》. …”

21) 송혜진,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친제 불교음악』, 120쪽.

인자본이 의궤와 유사성을 지닌 전적이라는 점은 해당 시기에 편찬된 의궤와 비교해 보면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의궤가 1건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의궤’라는 명칭과 갑인자본이 불교 행사에 대한 기록이고 「삼불예참문」이 불교 의식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궤’ 또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불교 의식집과 비교를 통해 단초를 찾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조선 시대 의궤의 일반적인 형태를 살펴보고, 현전하는 의궤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고 豊모이라는 단일 행사를 기록한 1630년(인조8)의 『豊呈都監儀軌』와 비교해 보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갑인자본이 불교의 의식집인 의궤의 형태는 물론 조선 시대 의궤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조선 전기에는 불교 의궤 가운데 水陸齋가 가장 성행하였다. 수록재는 970년(광종21)에 행한 기록이 있으며,²²⁾ 1090년(신종7)에는 普濟寺 水陸堂에 불이 났다는 『高麗史』의 기사에 이전에 崔士謙이 宋에 가서 『水陸儀文』을 구해 왔다는 기록이 있다.²³⁾ 또 混丘(1251~1322)가 『新編水陸儀文』을 저술하였고,²⁴⁾ 1342년(충혜왕3)에는 竹庵이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를 저술한 것²⁵⁾을 통하여 수록재가 널리 행해지고 수록재에 관한 의궤가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은 1395년(태조4) 2월 고려의 왕씨를 위하

22)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下)』, 「갈양사 혜거국사비」, 혜안, 1996, 465쪽.

23)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7年 1月 26日 壬辰. “普濟寺 水陸堂에 화재가 났다. 이에 앞서 嬖人 攝戶部郎中 知太史局事 崔士謙이 宋에 가서 水陸儀文을 구하여 와서 왕에게 수록당을 짓기를 청하였는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화재가 났다(普濟寺 水陸堂火. 先是, 嬖人 攝戶部郎中, 知太史局事 崔士謙入宋求得水陸儀文, 請王作此堂, 功未畢而火).”

24) 『東文選』 권118; 『益齋亂藁』 권7, 「有元高麗國曹溪宗慈氏山瑩源寺寶鑑國師碑銘」. “有語錄兩卷, 歌頌雜著二卷, 新編水陸儀文二卷, 重編指頌事苑三十卷, 行叢林問.”

25)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서지학연구』 43, 2009, 127쪽.

여 開京의 觀音堀, 居昌의 見巖寺, 三陟의 三和寺에서 수록재를 설행하고 매년 봄가을로 설행하는 것을 상례화하였는데,²⁶⁾ 권근은 「水陸儀文跋」에서 ‘水陸儀文’ 21本을 인쇄하여 3곳의 사찰에 7본씩 영구히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였다.²⁷⁾ 권근의 발문을 통하여 수록재를 행하는 의식 절차를 밝힌 ‘수록의문’도 함께 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록의문’은 수록재에 관련된 의문을 통칭하는 말로, 권근의 발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서명을 확인할 수 없는데, 송일기·한지희는 『天地冥陽水陸儀文』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²⁸⁾

수록재는 조선 초기 國行 의례의 자격을 획득한 이래 국가와 왕실의 주도로 지속적으로 설행되었다. 수록재는 주로 薦度 의례로 개설되었지만 왕실의 忌辰齋나 救病 의례로도 설행되었으며, 태종이 薦度齋와 기신재를 수록재로 설행하도록 한 이후²⁹⁾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불교 의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수록재의 의식집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³⁰⁾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가 대표적이므로 이 3종의 의식집을 살펴보겠다.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³¹⁾(이하 『수록수재의귀』)는 말미에 수록된

26) 『태조실록』 권7, 4년 2월 24일, “임금이 水陸齋를 觀音堀, 見巖寺, 三和寺에서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였다. 고려의 왕씨를 위한 것이었다(上命設水陸齋於觀音堀, 見巖寺, 三和寺, 每春秋以爲常. 爲前朝王氏也).”

27) 권근, 『양촌집』, 권22 「水陸儀文跋」 “其秋, 金書妙法蓮華經三部, 特於內殿, 親臨轉讀. 又印水陸儀文三七本, 命設無遮平等大會于三所, 各置蓮經一本, 儀文七本永藏其地, 俾以舉行.”

28)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29) 『세종실록』 권16, 4년 5월 10일, “遂令忌辰及大夫士庶人追薦之齋, 皆設水陸, 赴寺之人有數焉.”

30)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외에도 『天地冥陽水陸齋儀』와 『天地冥陽水陸齋雜文』이 더 있다(한국고전적종합목록, 검색일 2019. 10. 6).

31)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본, 1635년(인조13)에 간행된 것으로 김수온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한국고전적종합목록, 검색일 2019. 10. 4).

김수온의 발문³²⁾을 통해 간행 시기, 목적, 주관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김수온의 발문에 따르면 간행 시기는 1470년(성종1)이고, 간행을 주관한 사람은 대왕대비인 貞熹王后, 간행 목적은 세조, 예종, 懿敬王(德宗)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수록재의 의문이 매우 번잡하거나 간략하여 수록재를 행할 때 의문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것이 수록재가 행해지지 않은 한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志磐이 편찬한 『수록수재의궤』를 간행하였다고 간행 배경도 설명하고 있다.

김수온이 발문에서 『수록수재의궤』를 ‘水陸儀文’이라 칭하고 있는 것을 통해 『수록수재의궤』가 수록재의 의례 절차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의문을 절충할 수 없다[儀文無所折衷]’는 표현을 통해 당시 수록재의 의례 절차에 관한 여러 종류의 儀文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권근의 「수록의문발」에서 언급한 ‘수록의문’이 『수록수재의궤』와는 다른 종류의 의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불교 의례 절차를 기록한 의식집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儀文’ ‘儀軌’ 등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록재의찬요』는 별도의 목차 없이 본문은 54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設會因由篇第一부터 普伸廻向篇第五十四까지로 나누고 편명과 의식 절차, 다라니 등 본문의 내용은 대자로 ‘所有印契等法具載小本 此不重錄’ 등 주석이나 ‘門外設座 修疏迎請’ 등 부연 설명과 ‘衆和’, ‘已上呪 各三徧’ 등 동작을 설명하는 내용은 소자쌍행으로 기록하였다.

32) “右大字水陸儀文板本, 我大王大妃殿下爲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冥福而成者也。蓋水陸之制, 創於梁朝, 功德之勝播於傳記。而世所遵用, 其本不同, 繁者傷於浩穰, 略者失於簡嚴, 儀文無所折衷, 用者難於所擇, 遂使我佛無遮之義有所不行久矣。大王大妃殿下特命刊於志磐文, 且使臣朴耕更寫大楷, … 成化六年秋七月望前有日 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臣金守溫奉教謹跋。”

『수륙수재의궤』는 별도의 목차 없이³³⁾ 본문은 4쪽(이하 이미지 쪽수)부터 시작되는데 “行晨朝開啓法事” “至心歸命禮十方世界諸佛法僧” 같은 수록재의 주요 절차와 예법, 다라니[呪] 등은 대자로 표기하고 “先一日大衆沐浴更衣” “法師領 施主入道場” “誦呪三徧” 등의 사전 준비와 동작, 물품 등은 소자쌍행으로 표기하였다. 앞부분에는 목차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제목은 보이지 않고 37쪽부터 “塗香眞言, 執鈴眞言, 執杵眞言, 建壇眞言, 開壇眞言, 結界眞言”에 이어 38쪽의 “召請四直篇”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召請四直篇” 앞부분은 본격적인 행사 이전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같다. 이후로는 각각의 의례를 ① 召請四直篇을 시작으로 43쪽의 ② 安位供養篇, 167쪽의 ③ 敬伸奉送篇까지 38개의 편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들 목차 중 “安位供養”, “奉送使者” “敬伸奉送” 등 일부는 『수륙재의찬요』의 목차와도 동일하다.

또 『수륙수재의궤』의 첫 문장인 소자로 표기된 “하루 전에 대중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미리 대중을 경계한다.[先一日, 大衆沐浴更衣, 預戒大衆]”는 「삼불예참문」의 첫 문장인 “미리 대중을 택하여 목욕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마침내 이 예참 법연을 연다.[預前擇衆設沐, 以淨道場, 爾乃開此禮懺法筵]”와 동일한 맥락으로, 법회를 열기 전 사전 준비 사항을 서술한 것이다. 이로써 「삼불예참문」 역시 수록재 의식 전체를 담은 『수륙수재의궤』처럼 예참 법회의 전 과정을 기술한 의식집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豐呈都監儀軌』³⁴⁾는 1630년(인조8)에 편찬한 것으로 현전하는 조선 시

33)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 2쪽과 3쪽에는 목차에 해당하는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目錄’과 ‘水陸儀文目錄上卷’이 있지만, 본문의 목차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의 목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4)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의궤로 유일본이다. 辛亥年 2月 2日의 備忘記로 시작되는 「進豐呈儀軌」는 기사년(1629) 9월 9일부터 경오년(1630) 4월 11일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풍정의궤』와는 다른 시기의 기록이므로 별도의

대 의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600년(선조33)에 편찬하여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의궤인 『懿仁后殯殿魂殿都監儀軌』, 『懿仁后山陵都監儀軌』와 편찬 시기가 30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당시 대왕대비인 인목대비에게 올린 豐呈이라는 왕실 연회에 관한 의궤이므로, 이를 갑인자본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官撰 의궤는 국가의 주요 행사를 망라한 기록이고 조선 초기부터 편찬되었지만, 의궤의 작성에 대한 규정은 1808년(순조8)에 편찬된 『萬機要覽』의 다음 내용이 유일하다.

국가의 중요한 禮節이나 事役이 있으면 都監을 설치하여 거행한다. …… 도감의 일을 마친 후 儀軌廳을 설치한다. 의궤청 堂上은 도감 당상이 그대로 살피고, 郎廳은 도감의 낭청 가운데서 1員을 차출하여 전적으로 관장하여 거행하게 한다. 도감을 설치한 날부터 철폐한 날까지 재정의 조달, 문서의 왕래, 物種의 실제 소요를 빠짐없이 뽑아내어 분류하고 모아서 책자를 만드는데, 6질 또는 7질을 만든다.³⁵⁾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예절이나 사역을 위하여 임시로 도감을 설치하고 도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나면 도감에서 집행한 재정, 발송하거나 받은 문서, 사용한 물품 등을 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다음 의궤를 편찬함으로써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만기요람』에서 규정한 내용 자체가 매우 소략하고 후대의 기록이므로 의궤 전체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도감 명단 뒤에 기록된 2건의 계사도 본고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5) 『萬機要覽』財用篇5, 權設都監. “國家有大禮節, 大事役則設都監舉行. … 都監竣事後, 設儀軌廳. 堂上則都監堂上仍察, 郎廳則都監郎廳中劃出一員, 專管舉行. 自設都監日至撤罷日, 物力區劃, 文牒去來, 物種實入, 無遺抄出, 分秩類聚. 修正冊子六秩或七秩.”

통용되는 규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의궤의 일반적인 내용과 일치하며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풍정도감의궤』는 ① 啓辭와 甘結, ② 儀仗數 ③ 呈才色 ④ 饌膳色, ⑤ 排設色, ⑥ 豐呈儀式, ⑦ 都監 官員 名單의 일곱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은 풍정의 사전 준비, ②와 ③은 풍정에 사용할 의장과 설행한 정재(춤과 노래), ④와 ⑤는 진풍정의 음식과 기물, ⑥은 진풍정의 의식, 즉 의례 절차, ⑦은 풍정도감의 관원 명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은 이듬해 봄에 진풍정을 하겠다는 1629년 9월 9일의 備忘記를 시작으로 풍정과 관련된 각 관사가 인조에게 보고한 啓辭와 각 관사 간에 주고받은 문서인 甘結을 1630년 3월 19일까지 날짜별로 수록하였다. ②는 의장의 목록과 수효를 대왕대비전, 대전, 왕비전으로 나누어 기록하였고, ③은 1630년 1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정재색에 관련된 계사와 감결을 실었다. ④는 풍정에 필요한 宴床을 대상별로 음식명, 器數, 높이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필요한 재료와 조달을 담당한 관사를 밝혔으며, 말미에는 書吏 5인의 성명과 “都使令 李後男等六名”을 대자로 기록하고 담당 업무와 料布를 지급하는 관사를 소자로 기록하였다. ⑤는 床卓 등 연회의 배설에 필요한 기물과 조달 담당 관사를 실었다. ⑥은 풍정의 의식을 하루 전 자리의 배설부터 진행 순서대로 서술하였으며, ⑦은 도감의 提調 2원과 郎廳 4원의 명단을 품계와 관직을 밝히고 姓을 명기하였다.

『풍정도감의궤』를 豐呈, 進饌, 進宴 등 宴享 관련 의궤의 전형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풍정에서 연주한 악곡과 악장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행사의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술하고, 행사 담당자와 각각의 담당 업무를 밝힌 점, 의식에 해당하는 풍정의식 등을 별도로 수록한 것 등 갑인자본과 유사하거나 공통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김수온의 저작으로 알려진 갑인자본 『사리영웅기』를 김수온의 문집인 『식우집』에 수록된 「사리영웅기」와 비교하여 갑인자본에는 식우집본 이외의 내용이 추가된 사실을 밝혔다. 또한 소자쌍행으로 기록된 「삼불예참문」, 9개의 악장, 2편의 소, 「정근입장인명」의 저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김수온의 직접 저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문소전 불당이 유교적 제례 공간인 別廟 문소전과 짝하는 불교적 추모 공간이며 갑인자본이 불당에서 행하는 추모 의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초주 갑인자로 간행된 것은 조선 시대 관찬 의궤의 내용 및 편찬 목적과 유사성을 지니는 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갑인자본 전체의 약 27%에 해당하는 규모인 「삼불예참문」이 예참 법회의 의식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조선 초기의 대표적 불교 행사인 수록재 의식집인 『수록재의찬요』와 『수록수재의궤』와 비교하여 「삼불예참문」 역시 이들과 유사한 형식의 의식집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수록재의찬요』와 『수록수재의궤』는 명칭과 형식은 다르지만 수록재 의식 절차를 의례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목차의 일부가 동일하다는 것도 밝혀 내었다.

즉 갑인자본은 식우집본에 문소전 불당 건립과 경찬회에 관련하여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소자쌍행으로 삽입하여 별도의 편집 또는 편찬 과정을 거쳐 간행한 전적이다. 아울러 내용상으로는 시간순의 기록, 업무 담당자의 기술, 악기와 노래, 춤의 구성, 상세한 의식 절차의 기록 등 많은 요소가 특정 의례의 진행을 위해 설치된 都監에 관련된 모든 내역을 담고 있는 관찬 의궤와 흡사한 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갑인자본이 편찬된 조선 초기의 관찬 의궤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정론

이 없으므로 갑인자본의 형태가 의궤와 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당의 건설과 경찬회 전 과정을 기술한 갑인자본과 특정 의례의 진행을 위해 설치된 都監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관찬 의궤와의 편찬 목적, 내용, 구성의 유사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다만, 조선 시대 의궤의 편찬이 도감의 설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도감의 설치와 관련이 없는 문소전 불당 건립과 경찬회의 기록인 갑인자본 『사리영응기』를 의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갑인자본이 관찬 의궤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리영응기’라는 김수온이 지은 기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이유 또한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갑인자본과 관찬 의궤의 내용적 유사성을 『풍정도감의 궤』 1건과의 비교만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2019.10.23. 투고 / 2019.12.09. 심사완료 / 2019.12.09. 게재확정)

[Abstract]

A Reexamination on the Sariyeongeunggi(『舍利靈應記』) :
Focusing on a Compiler and Characteristics

Jeong, Young-mi

The Sariyeongeunggi, the record on the Gyengchanhoe(慶讚會) which was the ceremony for the completion of Buldang next to the Moonsojeon(文昭殿) in 1448, the author is known as Kim Suon and, was Buddhist materials in the early Joseon, which was printed in metal type for the kapin font. The Sariyeongeunggi was included in the Sigu chip, Collected Works of Kim Suon in the same title, but was very different in scale and content. The Sariyeongeunggi and the Sigu chip were the same record on the establishment of Buldang and the process of the Gyengchanhoe, but the former contained the list of leading Buddhist monks, the Sambulyechammun(三佛禮懺文) writing the whole process of the ceremony, the titles and contents of the Akjang(樂章) which were composed by King Sejong, the two votive inscriptions(疏) on the ceremony, and the attendance list. but there were no such records in the latter.

Especially, the Sambulyechammun was the record of the ritual procedure in Buddhist ceremony, and the Suryuk Uiryemun(水陸儀禮文) of Beopgye Seongbeom Suryuk Seunghwe Sujae Uigwe(『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and the Chunji Myungyang Suryuk Saeui Chanyo(『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which was published around the same time was the

different name from the former but was written the procedure of the Suryuk in regular sequence.

Therefore, the Sariyeongeungi is very same as the general form of Uigwe(儀軌) in regard of the processes,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ceremony, and the ritual procedures.

□ Keyword

Sariyeongeungi, Uigwe, Gyengchanhoe, Uiryemun, Sambulyechammun

[참고문헌]

1. 단행본

- 金守濶, 『拭疣集』, 한국문집총간 9, 민족문화추진회, 1988.
이종찬 역, 『역주 사리영응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한영우, 『조선왕조의궤』, 일지사, 2005.
「식우집 해제」, 『한국문집총간해제』 1, 민족문화추진회, 1991.

2. 연구논문

- 고상현,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연구』 10, 2011.
곽동화, 「조선 전기 왕실본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강순애,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교 전적에 대한 연구」, 『서지학 연구』 74, 2018.
권오성, 「세종조 불교 음악 관계 문헌의 연구」, 『세종학연구』 2, 1987.
김문식, 「조선시대사 연구와 의궤」,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김수현, 「고려시대 밀교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영국, 「15世紀 國語의 四聲體系와 傍點에 대한 研究」,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우진, 「『사리영응기』 소재 악공 연구」, 『한국음악연구』 45, 2009.
박범훈, 「佛敎音樂의 傳來와 韓國的 展開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_____, 「세종대왕이 창제한 불교음악 연구-사리영응기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23, 1999.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송일기 · 정왕근, 「조선시대 금속활자본 불교서적의 서지적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9, 2015.

_____, 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의 編纂考」, 『서지학연구』 43, 2009.

송혜진, 「조선 전기 왕실 佛事의 전승과 음악 문화 연구」, 『한국음악연구』 56, 2014.

_____, 「『사리영응기』 소재 「삼불예참문」과 세종친제 불교음악」, 『동양예술』 30, 2016.

심효섭, 「조선 전기 수록재의 설행과 의례」, 『동국사학』 40, 2004.

이정주, 「세종 31년(1449) 刊 『舍利靈應記』 所載 精勤入場人 분석」, 『고문서 연구』 31, 2007.

정상훈, 「甲寅字本 『舍利靈應記』에 대하여: 고유인명 표기를 중심으로」, 『東院論集』 7, 1994.

조운호, 「朝鮮前期 金守溫家の 佛教信仰」,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3. 웹DB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